

종합·해설

■문-안, 대선후보 단일화 놓고 공방 격화

문 “정당없이는 못이길 것” 안 “무소속 대통령이 낫다”

조국, 문-안 단일화 3단계 방안 제시

‘정당후보론’과 ‘무소속 대통령론’을 둘러싸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1일에도 선공은 문 후보 측에서 나왔다. 안 후보가 전날 “무소속 대통령이 돼서 국회를 존중하고 양쪽을 설득해 나가면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신계훈 특보단장은 “정당의 순기능과 역기능 둘 다 현실 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온당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안철수 돌풍은 불신을 받고 있는 기성정당이 거듭나려는 것이지 무소속이 낫다는 민심의 표현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후보가 정당과 무소속 프레임에 갇혔는데 그 프레임을 깨야 한다”며 “그 안에서 무소속 대통령이 더 낫다고 강변하는

것은 실수다. 천재형 지식인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오히려 정당후보론이야말로 민주당이 설득력 없는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당론을 앞세운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민주당 후보가 1등을 못하는 것은 ‘문재인=정당’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결과”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의 무소속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공방의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넓은 정치권이 늘 싸우고 국민 불신을 받아오는 현실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기존의 정치 질서는 쇠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정치변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안 캠프 측에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는 싸우지 않고 우리 쪽에 싸움을 걸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정치혁신 위 공동구성→공동 정당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었는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양측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은 반반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추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봐야 한다”며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안 캠프 측에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는 싸우지 않고 우리 쪽에 싸움을 걸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정치혁신 위 공동구성→공동 정당정책 확립→세력관계 조율’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당의 혁신을 내걸었는데, 추상적으로 혁신이 됐다. 안됐다 논쟁만 하면 감정싸움만 벌어진다”며 “양측이 공동으로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 위원은 반반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합의추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력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는데, 책임총리제와 대통령 권한 부분 등을 놓고 양측이 합의를 봐야 한다”며 “단일화 나눠먹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존 공생의 경제민주주의'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뒤 대강당을 나서며 학생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민주화 정책 선점 나선 문재인

“재벌개혁 반드시 필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재벌 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민주화 정책 선점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미래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재벌은 재벌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뤄진 경제 민주화 관련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자회사 및 손자회사 소유 지분 제한 비율 상향조정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등 재벌개혁 정책들을 발표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시민주의 과제 5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와 양극화 심화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사례를 지적하고 문 후보에게 강력한 경제민주

화 실현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농업 부문의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고소득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선대위 미래캠프의 ‘일자리 혁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지난달 경선에서 승리한 뒤,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일성으로 밝혔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기고, 그 안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뒤 청년 실업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이틀째 충청권 표심잡기

과학·교육 비전 제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이틀째 충청권을 공략했다. 그는 오전에 대한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김승조 원장의 안내로 위성시험동과 발사체 조립동을 돌아보며 로켓과 위성 각 부분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던지고 2주 남은 나로호 발사의 준비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안 후보는 향후연 방문 소감으로 “과학기술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이라며 “비록 1, 2차는 실패했지만,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 확률을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한창인 세종시를 방문했다. 안 후보는 이연호 행복도시건설청 대변인과 함께 세종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가 정부청사 건설 현황과 기반 시설 확충 여부 등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는 전망대에서 내려와 기자들에게 “행정도시의 자족을 위해선 저녁에도 많은 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문화·의료 쪽이 잘 보장돼야 행정도시 역할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청주교대에서 대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안 후보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로 갑니다”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교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안 후보는 충청 방문을 마치고 삼강하자마자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김영우·장문정씨의 빈소를 방문, 조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노무현-김정일 녹취록 의혹 제기

민주, 與 ‘신북풍 공작’ 강경대응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이(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를 ‘신(新)북풍 공작’으로 규정,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론의 공세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정조준, 보수층 결집을 위한 ‘새북풍’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문 후보 선대위의 이상호 공보단장

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이 대선 국면에서 구태정치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날조된 녹취록 이야기는 문 후보를 겨냥한 흑색선전 공세로, 구태정치 청산을 위해서라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캠프 및 당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옛날의 ‘북풍’을 이용하는, 못된 버릇이 도지고 있다”며 “새

누리당은 이성을 잃은 ‘신북풍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녹취록을 봤다면 공개하라”며 “녹취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역제안’했다. 그는 하지만 “단연코 단독회담은 없었고 녹취록 또한 없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하락하자 국면전환용으로 이러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전근대적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과 민주당의 총력 대응에는 자칫 ‘친노 후보’라는 프레임에 휘둘러 중도·무당파로의 외연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용준·김성주·정몽준·황우여

박근혜 대선캠프 인선 완료...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에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과 여성CEO 김성주(56) 성주그룹 회장, 정몽준 전 대표(61), 황우여 대표(65) 등 4인을 임명했다.

국민대통합위원장과 공약위원장에는 박 후보 자신이 직접 맡기로 했다. 이(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총괄선대본부장, 서병수 사무총장은 당무조정본부에 임명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중선위 공동위원장 중 정 전 대표의 경우 박 후보가 지난 6일 회동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직이 아닌 다른 직을 제안하면서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했으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정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를 위해 물밑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정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는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대표적 비박계 인사인

이재오 의원에 대해 “선대위에 모시려고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고 답을 못들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계속 연락해서 (선대위 참여를)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선대위 의장단에는 김태호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그대로 임명됐다.

그러나 애초 의장단에 포함됐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된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단은 삼재철·유기준·이해훈·정우택·김진선 최고위원과 남경필·정병국·유승민 의원이 공식 임명됐고, 특보단장에는 이주영 의원이 발탁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면접능력향상과정

■대상 :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획·설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친화 문명화하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골드유통
010-2082-6353, 062)383-6364

경매에 관한 모든것!

경매 NPL물건 특수물건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교육/임장 활동비 등 회비있음
- ▶단독/공동투자가능

경매 입찰할 물건에 투자하실분!

- ▶1억투자시 연1200만원 지급
- ▶제1순위 근저당/가등기로 보장
- ▶기간 : 1년정도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TEL 062-52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